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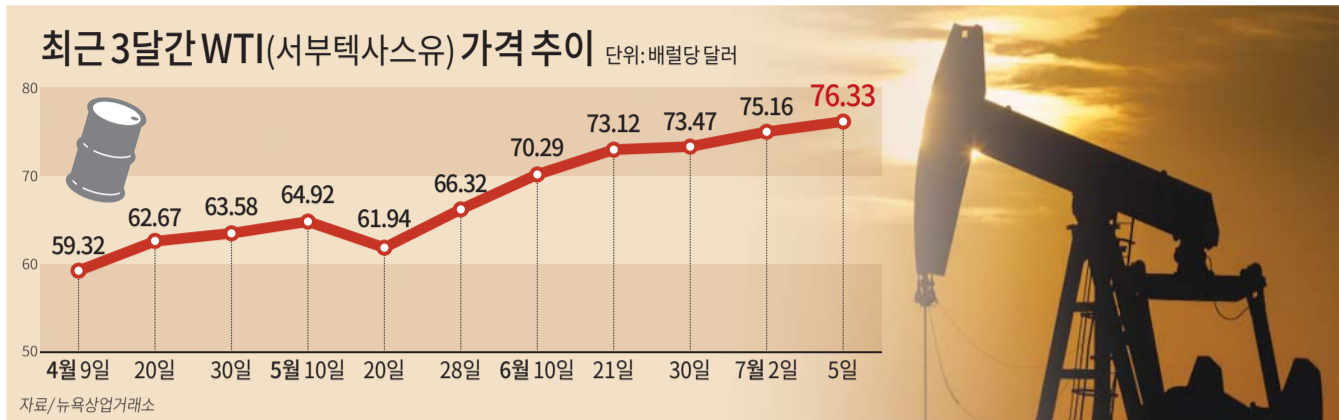
# OPEC+ 회의취소에 유가 또 뛰었다... ‘하락’ 베팅 개미 悲

원유정책회의 결론 없이 종료  
WTI, 올들어 50% 이상 올라  
유가 추종 ETP도 호조 가능성

전문가들 “지나친 낙관 금물  
장기적 관점 하락 요인 충분”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하락 가능성에 베팅했던 투자자에게 주의보가 발동됐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이끄는 산유국 모임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가 원유정책 회의를 아무런 결론 없이 종료하면서다. 이에 따라 유가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상품(ETP) 역시 당분간 호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란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락 요인 역시 충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76.3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일 201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75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들어서만 50% 이상 상승했다. 급기야 시간외 선물에서 1% 이상 상승하며 76달러



를 넘어섰다. 런던ICE선물거래소의 9월물 북해산 브렌트유도 201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77달러를 넘어섰다.

시장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다. 유가가 수급 불균형 전망 속에 배럴당 70달러대의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OPEC의 하반기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도 강했던 만큼 추가적인 감산량 축소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원유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도 반영됐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대신 WTI원유선물ETN(H)'은 1.93% 상승했다. '신한 브렌트원유선물 ETN(H)',

'KODEX WTI원유선물(H)', '신한 WTI원유선물ETN(H)' 등도 1%대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그동안 개인투자자는 유가 하락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정황은 수급 동향을 보면 알 수 있다. 전 거래일 기준 최근 한 달 동안 개인은 134억원 어치의 'KODEX WTI원유선물(H)'을 순매도했다. 'TIGER원유선물Enhanced(H)'와 'KB STAR미국S&P원유생산기업(합성H)'을 각각 81억원, 38억원 규모로 팔아치웠다.

반면 기초자산인 WTI의 등락을 반대로 추종하는 'KODEX WTI원유선물 인버스(H)'는 17억원 어치를 사들였

다. 타이트한 유가 수급 현상이 완화될 것이란 전망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단기적인 유가 상승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증산 합의가 계속 지연되면 하반기 석유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유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원유시장 내 타이트한 수급 여건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하반기에도 유가 상승은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OPEC+ 회의에서 논의된 증산 규모를 고려하면 3분기 유가의 급등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가를 추종하는 미국 과

생상품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유가 움직임의 세 배 수익률을 내는 '마이크로섹터 US 빅오일 3X레버리지 ETN'(NRGU)은 올해 들어 202% 급등했다. 마찬가지로 유가 상승세 베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S&P 오일&가스 불 2X'(GUSH), 프로세서즈 울트라 블룸버그 크루드오일(UCO)과 프로세서즈 울트라 오일&가스(DIG) 등 역시 같은 기간 2배 이상 상승한 상품들이다.

다만 무조건적인 상승을 예견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유가 상승을 전망하면서도 양방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라고 조언한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각을 세운 아랍에미리트가 OPEC을 탈퇴한다면 지난해 5월부터 유가 하락경직성을 강화해온 OPEC+ 공조 체제의 와해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갈등 속 부분별 증산 전쟁으로 초래된 지난해 유가 급락 이벤트를 재현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 DL이앤씨, AI 스마트 홈 'e편한세상'에 적용

주차유도 관제, 재실 감지 조명 등  
AI·엔택트·IoT기술로 단지 차별화

DL이앤씨(디엘이앤씨)가 중소기업과 3년간의 연구기간을 거쳐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엔택트,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홈을 선보인다. 디엘이앤씨는 이번에 공개한 기술을 e편한세상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디엘이앤씨가 선보이는 첫 번째 기술은 AI 주차유도 관제시스템이다. 입주민의 차량이 진입하면 AI가 차량정보를 분석해 입주민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공간을 스마트폰이나 전광판을 통해 안내해 준다. 주차가 완료되면 스마트폰이나 월패드에서 주차된 차량을 확인 가능하다.

주차를 하고 아파트 출입구로 올라오면 안면 인식 로비폰이 설치돼 있어 출입카드나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 없다.



DL이앤씨가 선보이는 각종 스마트 홈 기술. /DL이앤씨

기계가 얼굴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호출되는 시스템이다. 외부 방문객은 간단한 손짓으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할 수도 있다.

엔택트 기술도 선보일 계획이다. 디엘이앤씨는 사람의 활동을 추적해 조명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재실 감지 조명 시스템'을 개발했다. 같은 집에서도 사람이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는 펜트리, 보조 주방, 실외기실 같은 곳에 이 시스템이 적용된다.

아파트 곳곳에는 각종 IoT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디엘이앤씨는 사람이

휴대하고 이동하면서 온도를 조절하고 조명을 조절할 수 있는 리모컨을 설치하고 더 넓은 각도로 촬영 가능한 스마트 도어폰 또한 도입했다. 도어폰은 현관 앞에 택배가 도착하면 입주민이 스마트폰으로 택배가 도착했다는 알림 메시지를 보내준다.

디엘이앤씨 최영락 주택기술개발 담당원은 6일 "똑똑하고 안전한 아파트에 대한 고객들의 눈 높이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e편한세상의 차별화된 기술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혁 수습기자 wonster@

## KB자산운용 기업투자부문 약정액 1.5조 돌파

KB자산운용의 기업투자부문 누적 약정액이 1조5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30일 국민연금 공동투자(코인베스트, Co-Investment)펀드 위탁 운용사로 선정되면서 국민연금 등 기관으로부터 3200억원을 약정받아 누적 약정액이 크게 늘었다. 기존 운용하던 1조 원 규모의 블라인드펀드와 37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펀드를 합치면 1조7200억으로 연내 누적 약정액 2조원 돌파 가능성도 커진 상태다.

KB자산운용 기업투자본부의 강점은 차별화된 인력구성이다. 사모펀드(PE)운용사, 투자은행(IB), 산업계 등 다양한 투자 경험과 풍부한 투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투자방법마다 고유의 리스크요인을 정확히 파악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린다. 또 최근 대형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핵심운용역으로 영입했다.

김원태 KB자산운용 기업투자본부 상무는 "2007년 첫 투자 후 26개의 프



젝트에 투자하면서 원금 손실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은 보기도문 투자성과"라며 "KB금융그룹의 브랜드 파워와 뛰어난 인력구성이 시너지를 내면서 이런 성과"라고 말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

## 올 상반기 80개 상장사 간판 바꿨다

변경 사유 46% "회사 이미지 제고"

올 상반기에 총 80개 상장회사가 간판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상장사 상호를 변경한 회사는 모두 80곳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55개사) 대비 45.5%(25개사) 증가한 수치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선 전년 동기(18개사) 대비 9개사가 증가한 27개사가, 코스닥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16개사 증가한 53개사가 상호

를 변경했다. 최근 5년간 변경 현황은 ▲2017년 106개사 ▲2018년 80개사 ▲2019년 95개사 ▲2020년 95개사로, 2018년에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호변경 사유로는 '회사 이미지 제고'가 50개사(4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 다각화 34개사(31.2%) ▲회사 분할·합병 15개사(13.8%) ▲경영 목적 및 전략 제고 8개사(7.3%) 순으로 나타났다.

/양유경 수습기자 noon@

## KB證-美 제퍼리스, 리서치 서비스 계약

KB증권이 업무 협약 파트너인 글로벌 투자은행 제퍼리스(Jefferies)와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글로벌 리서치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KB증권은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증권사 최초로 글로벌 투자은행의 리서치

자료를 한국 기관투자자에 공급하게 됐다. 제퍼리스가 생산하는 글로벌 시장, 산업 및 기업 분석 보고서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돼 국내 증권사의 글로벌 투자 서비스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박미경기자

## LH, 부동산 투기 예방 '준법감시관' 공모

1명 선발, 경남 진주 LH본사 근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와 투기를 막기 위해 '준법감시관'을 뽑는다고 6일 밝혔다.

준법감시관은 1명 뽑을 예정이며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경력 5년 이상인 5급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한다. 합격자는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근무할 예정이며 임기는 2년이다. 근무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1년에서 5년 단위로 연장도 가능하다.

공모는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며 LH 홈페이지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원혁 수습기자